



OSSIA : Op.1 잠함재래

光 碎 の リ ヴ ァ ル チ ャ ー

—— ‘그것’은 가라앉는 것으로, 저 먼 우주에서 찾아왔으니.

Return of Luachta

OSSIA : Op.1 잠함재래

광쇄의 리벌처 비공식 팬 시나리오 w. 케메 KEME

Return of Luachta 潛艦再來

OSSIA : Op.1 잠함재래

—— OSSIA 오씨아 캠페인 3부작 Op.1 ——

『광쇄의 리벌처』 비공식 팬메이드 캠페인 시나리오

W. 케메 KEME @willofwill

회색의 사토에 파묻혀버린, 이면의 역사를 찾으리로다.

—— ‘그것’은 가라앉는 것으로, 저 먼 우주에서 찾아왔으니.

本作は「どらこにあん」及び「株式会社アークライト」が権利を有する『光碎のリヴァルチャー』の二次創作です。

본작은 「드라코니안」 및 「주식회사 아크라이트」가 권리를 보유한 『광쇄의 리벌처』의 2차 창작입니다.

 사용 룰 : 광쇄의 리벌처 光砕のリヴァルチャー

 추천 플레이어 수 : GM 포함 2인 (GM 1인, PL 1인)

 권장 룰 사양 : 『광쇄의 리벌처』 기본룰북, 『세컨드 시즌』 , GM의 경우 『소라바미 아카이브』 필수.

 예상 플레이 타임 : 온라인 텍스트 세션 기준 4~5시간

 키워드 : #드라코니언유니버스파먹기 #준월드이벤트급 #기업설정 #비겐리트 #에어갯람 #캠페인

 PL 공개 범위 : 해당 시나리오는 전문 PL에게 공개 가능합니다.

 SNS 공개 범위 : 전체 공개 가능하나, 브리핑-미션 파트의 에너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세션용 키트 : 시나리오 플레이 용도의 세션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INK\]](#)

세션용 키트는 해당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는 용도에 한해 상식선에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OVERVIEW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

회색의 황야를 돌며 다양한 소라바미를 토벌하는 일군의 포트리스로 이루어진 무장집단.

그들은 전력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옛 공장 유적 등에서 새로이 발굴한 희소한 리벌처 용 웨폰을 다수 비싼 값에 사들여 보유하기도 한다.

요루토리가 가장 최근 수집한 웨폰은 머신건 「IWG 플뤼겔 R」 로 유명한 전설 상의 웨폰스미스 기업 , 「비겐리트」 의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블레이드’였다.

슈발리에와 피앙세 두 사람은 이 「비겐리트」 제의 ‘블레이드’ 기동 테스트 목적으로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에 불러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블레이드는 기동하지 않고, 원인을 찾던 두 사람은 뜻밖의 진실과 마주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아드 대전 이후로 64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이면의 역사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데.....

시나리오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캠페인 시나리오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캠페인은 광쇄의 리벌처 내부 중요 월드 설정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과 2차 창작이 가미 되어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광쇄의 리벌처』 를 집필한 드라코니언의 또다른 TRPG 『붉은 고탑의 에어게트람: The Answerer』 의 월드 설정을 중 일부를 중요 시나리오 후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광쇄의 리벌처 세컨드 시즌』까지의 월드 설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보다 심도있고 재미있게 ‘드라코니언 유니버스’를 즐기고 싶다면, 『붉은 고탑의 에어게트람: The Answerer』의 월드 설정을 비롯해 『흑현의 어밴드너 미니 서플리먼트 1.0 「예지와 영광」』, 『Role&Roll 200호, 201호, 203호』의 광쇄의 리벌처 월드 가이드, 『소라바미 아카이브』, 드라코니언 홈페이지 배포 캠페인 시나리오 「캠페인: 요루토리 제 1화 360 frontline」의 미션 이전 파트 등을 참조해주세요.
이상이 본 캠페인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Special Thanks. 막나가는 토끼경두 행동에 올려주시는 도요님.

——— 시나리오 본문은 좌측 탭의 하위 탭 문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 UPDATE NOTES

2026. 03. 04. 시나리오 배포.

WRITER'S COMMENTS

“우리도 좀 거대한 월드스케일 이벤트를 큼직하게 많이 던져주면 안되나? 알아서 조리하세요 식 월드 가이드가 너무 많지않나?” 라고 생각한 케메는 결국 드라코니언의 동인 룰의 월드 설정에 마구 손을 대고 마는데...

시나리오 중에 등장하는 「WS 메트로놈 RS」는 에어게트람의 지아드 암즈, 메트로놈의 오마주입니다.
하지만 S.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화에.



전문 공개 가능

———— 이하로는 시나리오 중, PL에게 공개 가능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

❖ 트레일러

회색의 사토에 파묻혀버린, 이면의 역사를 찾으리로다.

———— ‘그것’은 가라앉는 것으로, 저 먼 우주에서 찾아왔으니.

*광쇄의 리벌처
「OSSIA : Op.1 잠함재래 Return of Luachta」*

❖ 플래시백

플래시백은 시나리오 개시 시점에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연출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본 시나리오의 플래시백은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페어가 드라코니언 홈페이지에서 배포 중인 공식 3부작 「캠페인 : 요루토리」의 제 1화를 플레이 해보았거나, 혹은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에 대해 알고 있거나 연관이 있는 설정이라면 ‘이전의 인연’ 등으로 의뢰 요청을 받았다는 식으로, 요루토리에 대한 설명을 건너뛰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페어가 드라코니언 홈페이지에서 배포 중인 공식 3부작 「캠페인 : 요루토리」의 제 1화를 플레이 해보지 않았거나,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에 대해 모른다는 설정이라면, 간략하게 다음을 소개합니다.

🔥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의 설명 (360 frontline PL용 줄거리에서 발췌)

초거대 포트리스 ‘샤쿠나게’를 필두로 다른 여러 중~소형 포트리스가 모인 무장 집단. 소라바미를 격파하는 것에 특화된 집단이며, 수십대의 리벌처를 보유하는 등 회색의 황야에서도 손꼽히는 세력이다.

아일라, 파볼, 이페 등 다양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최신형 장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지만 생산, 생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무력과 경험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다른 포트리스로부터 생활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라는 명칭은 리더인 슈발리에 여성 ‘키마이라’의 취향에서 나온 것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은 진심으로 회색의 평야에 퍼진 모든 소라바미를 토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초거대 포트리스 사쿠나게를 필두로한 일군의 포트리스가 모인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의 정박지.

두 사람이 오늘 이 곳을 방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로부터의 웨폰 기동 테스트 의뢰를 위해서죠.

키마이라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제군!”

두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요루토리의 리더인 슈발리에 키마이라입니다.

키마이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회색의 황야에서 소라바미 토벌에 있어서만큼은 굴지의 무장집단이라 할 수 있지.”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각지의 경매장, 리벌처 공장 유적 등에 사람을 보내 희소한 리벌처용 웨폰을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들이고 있어.”

수장 키마이라는 그렇게 말하며 기동 테스트 현장으로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요루토리 리벌처 부대의 리벌처들이 도열해있습디만, 무슨 기준인지 모두 프레임이 다른 기체군요.

두 사람의 리벌처도 격납된 채로 수송되어 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키마이라

“오늘 자네들을 부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수집한 이 리벌처 용 블레이드 때문이야.”

“자네들, 고회력의 머신건 「WG 플뤼겔 R」의 제조 기업에 대해 알고 있나?”

“대전 당시의 전설처럼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기업, 「비겐리트」의 웨폰은 지금까지 「WG 플뤼겔 R」만 남아 있다고 생각했네만, 최근 우리는 이 블레이드를 손에 넣었지.”

키마이라가 보여주는 블레이드의 날면에는 오선보같은 문양 위에 「비겐리트 Wiegenlied」라고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WG 플뤼겔 R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로고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말이죠.

키마이라

“이 블레이드의 모델명은 「WS 메트로놈 RS」.”

“요루토리 내에서 단순 웨폰 테스트만 하는 리벌처 프레임이 따로 있네만, 무슨 일인지 그 프레임으로는 이 블레이드를 기동하는데 실패해서 말이야. 최대한 많은 리벌처로 테스트 해보려 하다보니 자네들을 부르게 되었어.”

이후, 간단히 모여있는 리벌처 부대가 비겐리트 제 블레이드 「WS 메트로놈 RS」의 기동에 실패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페어의 리벌처로도 이 블레이드를 기동하는 것에는 실패하도록 해주세요.

키마이라

“이상하군. 내 나이트호크는 그렇다치고, 이렇게 많은 리벌처가 모였는데도 전혀 기동할 생각을 않는다니. 혹시 가짜를 사들인건가?”

“하지만 모델명도 「비겐리트」 제로 보이는데, 이 모델명의 R이 리바이벌이라면, S는 뭐지...? 정말 가짜인건가.”

“미안하군. 잠시 머물며 대기해주게,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확인한 후에 자네들에게도 알려줄테니.”

며칠 후, 키마이라는 두 사람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키마이라

“우선,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그때 테스트 했던 비겐리트의 블레이드는 가짜가 아니었다네.”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쪽은 C3 심해기동본사에서 재직했던, 지아드 웨폰의 전문가일세. 지금은 해상이상도시 에발 마과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 이 웨폰에 대해 전문가가 필요해서 잠시 초빙해왔네.”

전 C3 출신 지아드웨폰 전문가는, 두 사람에게 분해된 「WS 메트로놈 RS」 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전 C3 출신 지아드웨폰 전문가

“이건 일반적인 블레이드가 아니라 지아드 웨폰의 한 종류, 지아드 블레이드더군요. 하지만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C3의 지아드 웨폰 개발 구조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우선 구조적으로 리벌처의 지아드 기관과는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르겐타비스 같은 순환형 지아드 기관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출력이 턱없이 모자라요.”

“반대로, 소라바미라면 이 지아드 블레이드를 큰 문제 없이 기동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파괴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출력을 내니까요.”

“이 블레이드가 정말 비겐리트의 것인가요? 저는 비겐리트가 그저 전설 상의 기업인 줄만 알았습니다. 소라바미가 쓸만한 웨폰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C3의 개발주임을 비롯한 지아드웨폰 찬양론자들도 이 무기를 보여주면 개발윤리에서 벗어났다며 도리질을 칠겁니다.”

키마이라

“...라는 이유로 자네들을 다시 부른걸세.”

“엄밀히 따지면 소라바미가 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샤쿠나게를 필두로 요루토리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미심쩍은 지아드 블레이드 「WS 메트로놈 RS」 의 연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

“그러므로 자네들이 대신 「비겐리트」 의 조사를 해 주었으면 해. 보수는 톡톡히 치르도록 하지.”

이렇게 페어가 비겐리트의 조사 의뢰를 수락하면, 데이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 데이즈

데이즈에서는 페어가 비겐리트의 연원을 찾아 조사하는 내용을 연출합니다.

우선, 아래의 조사 시추에이션 표에서 RoC를 통한 주제를 내용과 페어에 맞추어 연출해주세요.

「비겐리트」 조사 시추에이션 표  D6		
1	복합 SPA 브랜드 '질버바이스'의 모회사라는 소문	회색의 황야에서도 나름 인지도 있는 젊은 연령층을 겨냥한 액세서리·패션 복합 SPA 브랜드 '질버바이스'의 모회사가 「비겐리트」라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질버바이스'는 어디까지나 패션 브랜드로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뿐 아무리 생각해도 군수기업이나 건스미스 기업으로 보이는 「비겐리트」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2	총수 슈발리에 설	과거, 지아드 대전 당시의 「비겐리트」의 기업 총수는 아주 유능한 슈발리에였다는 설이 있다. 정말로 그가 슈발리에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WG 플뤼겔 R」의 전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전술·기술적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었던 인물이 기업을 이끌어나갔다는 사실은 틀림 없어보인다.
3	유명 건스미스의 가명 설	지금껏 많은 「WG 플뤼겔 R」이 발굴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본도 없이 고화력의 머신건을 개발해냈을 리는 없다. 대전 시점까지만 존재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유명한 건스미스 기업이나 단체의 가명이며, 아직까지도 가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설이 그럴듯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WG 플뤼겔 R」의 명성을 생각하면 기업의 광고를 위해서도 지금쯤이라면 드러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4	프라우슈미트의 전신 기업이라는 소문	엑스큐서너, 도미네이터 등으로 유명한 군수기업 '프라우슈미트'의 전신 기업이지 않겠냐는 소문이 있다. 아직 회색의 황야라고 불리기 이전 시대의 기준으로는 「비겐리트」와 '프라우슈미트'는 동일한 언어로 된 단어라는 점에 주목해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얼뜨기 언어학자가 낸 의견 같은데...
5	적대기업과의 분쟁에 관한 소문	대전 당시, 슈발리에의 재능을 표준화하는 것에 치중한 어떤 기업에 전면적으로 적대지지를 표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비겐리트」는 슈발리에 개인의 재능, 즉 센스를 저마다 극한까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슈발리에 전체의 재능을 끌어올리는 일은 대전 당시에 필요했을 것이다. 혹시 「비겐리트」는 적대기업에 합병되었고, 현존하지는 않는 것일까?
6	전설은 전설로 존재해야한다	「비겐리트」에 대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자, 몇몇 사람들은 이미 망했으니 지금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듯한 반응을 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을 만큼 탄탄한 기업인데 드러내지않고 숨어있다면, 위험한 것이라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 롤플레이 지침

시추에이션 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원하는 대로 페어에 어울리는 내용을 자유로이 덧붙이거나, NPC 캐릭터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연출해주세요.

다만, 연출의 마무리는 '조사 결과 「비겐리트」에 대해서는 역시 다들 전설 내지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로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추에이션 표의 연출이 끝났다면, 페어는 요루토리에 「비겐리트」 제 블레이드를 판매한 사막의 스캐빈저를 찾아가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 스캐빈저는 블레이드를 우연히 습득한 상태로. 캐물어도 겪은 상황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겐리트」에 대한 실체 있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기대를 안고서 인류해방전선 요루토리에 문제의 블레이드 「WS 메트로놈 RS」를 판매한 스캐빈저를 찾아갑니다.

스캐빈저는 밀레시아화 지아드입자로 뒤덮힌 사막의 지하를 굴삭장비 등으로 파헤치며 쓸만한 것을 찾는 이들입니다.

이 스캐빈저도 그렇게 찾아낸 것을 요루토리에 팔아치웠다는군요.

스캐빈저

“「비겐리트」의 블레이드? 그거 꽤 후했지! 어디서 구했냐면, 스캐빈저들은 다 아는 곳인데 좀 으스스한 사막이 있어. 소라바미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못 돌아오는 사막.”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그 사막을 들렀어. 가는 날이 공습이라고 날이 진짜 환장하게 덥더라. 그래서 눈 앞에 갑자기 웬 포트리스가 나타났을 때는 진짜 놀랐어. 뜬금없이 나타났었거든.”

스캐빈저는 요루토리에 팔아치운 웨폰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연히 접한 듯 보이는군요.

요루토리로 부터 받은 돈이 꽤 후해서였을까요?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스캐빈저

“더워 먹어서 이것도 못본건가 싶어서 실 겸 그 포트리스나 구경했지. 좀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리벌처 처럼 보이는 게 몇 기 날아다니더라고.”

“뭐, 훈련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 포트리스에서 나온 쓰레기인지 뭔지를 사막에 버리더라. 요즘 어느 누가 쓰레기를 밀봉해서 버려? 다들 지아드 입자로 분해될 거 생각해서 대충 버리지. 그런데 밀폐된 컨테이너 째로 버리길래, 웬지 예사롭지 않아보였어.”

“나중에 주워다 까봤더니. 「비겐리트」 라고 써진 리벌처 용 블레이드가 들어있더라! 겉보기엔 멀쩡해보여서 고대로 요루토리에 팔았지.”

페어가 사막에 대한 좌표와 정보를 듣고, 문제의 사막으로 향하도록 연출 한 후,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 브리핑

두 사람은, 스캐빈저가 「WS 메트로놈 RS」 를 주웠다고 말했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도중, 중간 보고를 겸해 요루토리에 연락하자, 사막의 좌표를 확인해보고는 키마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키마이라

“그 근방은 요루토리도 몇 번 토벌을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야. 유달리 「소라바미 워프형」 의 출몰 빈도가 잦은 곳이거든. 그런 곳에서 발견했다니... 뭔가 있나?”

“혹시 모르니 그곳을 살펴주겠나? 「소라바미 워프형」 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고, 더 심도있는 조사를 부탁하지.”

사막으로 계속 나아가면 ...갑작스럽게 리벌처의 지아드 농도 계측기가 위험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상세를 확인해보면, 요루토리로부터 이미 전해들은 바 있는 , 「소라바미 워프형」 의 출현입니다.

「비겐리트」 에 대한 조사는 이 토벌이 끝난 후에 이어서 해야 할 듯 하군요.

기체나 어빌리티의 구성 등을 조정하고 페어의 리벌처의 출격을 연출한 후,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 미션

다른 소라바미가 흔히 보여주는 고속 기동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소라바미 워프형」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스크린에 비친 거체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더니, 이윽고 그것은 다른 플라이트 레벨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리벌처를 농락하기라도 하듯, 사막의 신기루가 되어 리벌처에게 공습을 가합니다.

——전투의 시간입니다!

본 시나리오는 지정된 에너지 데이터로서 『소라바미 아카이브』의 수록 소라바미 데이터 「소라바미 워프형」을 이용한 전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GM은 『소라바미 아카이브』의 「소라바미 워프형」 데이터를 확인하고, 미션의 전투를 진행합니다.

승리 조건은 소라바미의 실드 장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승리 조건입니다.

리벌처의 실드 장 수가 0이 될 경우 패배로, 로스트에 관한 처리는 기본룰북의 처리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소라바미의 실드 장 수를 0으로 하여 승리한 경우, 이어서 미션 오버의 연출을 진행합니다.

❖ 미션 오버

소라바미 워프형의 토벌이 끝나면 사막은 다시금 조용해집니다.

회색의 사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처럼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WARNING!!】 귀를 찢을 듯 경고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소라바미를 토벌했음에도 지아드 농도 계측기가 이상 신호를 마구 발산합니다. 동시에 스크린에 비친 사막 전체가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리벌처의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전원이 나갔다 재기동 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고도, 지아드 농도 계측기도 조용해집니다. 멀쩡해진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것이 존재합니다.

사막 한 가운데 나타난 것은 처음 보는 초거대 포트리스.

지면에 붙은 부분은 샤쿠나게같은 초거대 포트리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최상단 부분이 마치 거대한 랜스에라도 꿰뚫린 듯, 중력을 신경쓰지 않은 형태로 돌출되어있습니다.

아뇨. 랜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저 거대한 것은... 이 행성이 한 때 ‘지구’라고 불리기 합당했던 시절에, 우주를 항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함선...
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저것을 「꺾뚫렸다」 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합쳐졌다」 고 해야할까요?

특이한 구조를 살펴보던 두 사람이 홀린 듯, 최상단 부분을 좀해서 살펴보면, 주색(朱色)의 도장으로 적혀있는 글자는.

——지아드해(海) 가잠함 1번함 루아흐타 Luachta.

이 세상에, 지아드 해(海)라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가라앉는’ 배인 것일까요.

저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떻게 아무 것도 없던 곳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 세션을 마치며

무사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미션 클리어 보수(기본 룰북 P.152)를 획득합니다.

소감을 공개해 【OSSIA : Op.1 잠함재래】 의 《어치브먼트》 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광채의 리벌처 시즌』 의 인게이지먼트 룰을 사용할 경우, 만끽한 세션의 내용에 어울리는 「두 사람의 궤적」 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OSSIA : Op.2 에서 뵙도록 합니다.